

# 숨어있는 아름다움이 빛어낸 사찰 굴뚝

## 굴뚝(상)

굴뚝은 구들이라는 독특한 바닥난방시설에서 연기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설치한 장치이다. 구들은 불을 때는 아궁이, 연기가 지나면서 구들장을 데우도록 도랑처럼 축조한 구들고래, 굴뚝이 있는 벽과 평행으로 길게 파낸 개자리, 고막이 밑을 통과해 굴뚝까지 수평으로 연기가 빠져도록 만든 연도 그리고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으로 구성된다.

구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시설됐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삼국시대 고구려 지방에서는 이미 난방을 위한 시설로 구들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

과 독립굴뚝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민의 집에는 단순히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벽붙이굴뚝을 주로 설치했다.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곳에서는 굴뚝이 가진 기능성은 물론 장식적 효과를 고려해 독립굴뚝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립굴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연도를 짧게 해 건물의 기단에 놓거나 기단에 붙여 설치하기도 하고, 연도를 멀리 연장해 마당이나 건물 뒤편의 화계에 두기도 한다. 굴뚝의 높이를 기준으로 보면, 키가 낮은 난장이굴뚝이 있는가 하면 높이가 높은 키다리굴뚝도 있다. 한편, 공기역학상으로 볼 때, 굴뚝은 원형이 가장 좋으나,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사각형 단면을 가진 굴뚝을 만들기도 한다.

사찰 굴뚝 화려하지는 않아도  
사찰경관 형성하는 주요 요소  
사격따라 위치·형태 결정되나  
지나침 없이 단정·소박함 특징

감춰진 것 많아 눈여겨 봐야  
은밀한 아름다움은 즐거움 줘  
재료는 와편·진흙 함께 사용  
봉정사 영산암 굴뚝 등 빼어나

아 아주 오래된 난방장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구들이 한국의 집집마다 설치된 것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였다고 한다.

구들을 사용하게 된 초기단계에서부터 굴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의 굴뚝은 단지 연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연도에 연결되는 부분에 구멍을 내는 정도였다. 구들이 점차 보편화되고 구들 안의 연기를 제대로 뽑아 내기 위해서는 굴뚝을 수직적으로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굴뚝을 만들게 됐던 것으로 생각된다.

굴뚝은 벽에 붙여 설치하는 벽붙이굴뚝

우리나라 굴뚝 가운데에서 가장 장식적인 것을 꼽으라면 경복궁 교태전 후원의 아미산 굴뚝(보물 제811호)과 자경전 심장생굴뚝(보물 제810호)을 들 수 있다. 아미산에 설치된 굴뚝은 육각형으로 지금 4개가 남아있다. 높이는 2.60m이며 당초문 소나무 대나무 매화 모란 국화 용 호랑이 박쥐 해태 구름 등 의미 있는 다양한 문양을 새겨 넣은 조형전을 써서 벽면에 박아 넣었다.

자경전 심장생굴뚝은 담장 한 면을 한 단 앞으로 돌출시켜 만든 것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굴뚝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



굴뚝면 중앙에 심장생 무늬를 사용한 자경전 굴뚝



우리나라 굴뚝 중 가장 장식적인 경복궁 아미산 굴뚝



봉정사 영산암 굴뚝. 자신을 낮추고 있는 투박한 아름다움이 특징적이다.

가 많다. 이 굴뚝은 굴뚝면 중앙에 심장생 무늬를 조형전을 사용해 박아 넣고, 그 사이에는 회를 발라 화면을 구성했다. 화면은 너비가 3.81m, 높이가 2.36m, 두께는 65cm로 1888년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무늬의 주제는 해 산 물 구름 바위 소나무 거북 사슴 학 불로초 등 심장생과 포도 대나무 국화 새 연꽃 등이며, 둘레에는 학 나리 불가사리 바퀴 당초무늬를 새겨 넣었다. 굴뚝상단에는 용을 중심으로 좌·우로 학이 배치돼 있다.

사찰의 굴뚝은 궁궐의 그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찰경관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사찰의 굴뚝은 주로 스님들의 생활공간인 승방과 수행공간인 선방의 구들과 연결되며, 대체로 독립굴뚝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은 그 사찰의 격이나 규모에 맞도록 위치와 높이 그리고 형태가 결정되는데, 언제나 지나친 범이 없이 소박하고 단정하다. 그렇다고 해서 장식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 어떤 경우에는 굴뚝이 중요한 경관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찰의 굴뚝은 드러나기보다는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사찰을 찾는 사람들보다는 그 사찰에 머무는 스님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각적 요소로



순천 선암사 굴뚝



완주 화암사 굴뚝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이 굴뚝을 장식적 측면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사찰 경관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찰의 굴뚝은 역시 은밀하게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가지는 것이 제 격이다.

사찰의 굴뚝은 독립굴뚝이 많기는 하나, 그 크기는 사찰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것은 난쟁이굴뚝으로 높이가 낮고, 어떤 것은 키다리굴뚝으로 높이가 높다. 높이가 낮은 난쟁이굴뚝은 보통 1m 이하인 것이 대부

분이며, 독립굴뚝이기 때문에 비아무림을 위해 굴뚝 상부에 연가(煙家)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연가는 궁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본격적인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고 지붕형태로 만들거나 평기와를 몇 단 올려놓은 정도에 불과하다.

굴뚝의 재료는 와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쪼갠 와편을 쌓고 그 사이에 진흙을 채워 넣는 것으로 와편과 진흙의 놓기 비율이나 와편의 쌓기방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난쟁이굴뚝으로 대표적인 것은 안동 봉정사 영산암 안마당의 굴뚝, 순천 선암사 달마전 옆마당의 굴뚝, 완주 화암사 요사채 뒤편 한 단 높은 곳에 설치한 굴뚝, 익산 송림사 요사채 뒤편 한 단 높은 곳에 있는 굴뚝, 봉정사 극락전 옆마당에 설치한 굴뚝을 꼽을 수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 빙의 (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